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9월 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드자

절마다 도서관 만드자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장 청송 심 보살(38)은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자마자 장 중도에 있는 불광산사로 향한다. 다학시절 중국어를 전공한 장 보살에게 중국불서가 일반 도서관보다 비교적 많고 국내 불서까지 고루 갖춰진 불광산사 도서관은 하루의 여유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벌써 세 달째 책임기에 흠뻑 빠져 있는 장 보살은 '절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모아 도서관을 만들어 주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중국어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인근 지역 주민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동기를 부여해 주며 변화하면 자연히 신도들도 달라진다. 그러면 사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찰 도서관이 문을 연지 10년이 넘는 서울 사천왕사는 벌써 7번째 매주 한차례씩 신도들 스스로 독서모임을 연다. 회원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간 읽은 책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한다. 부처님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법열의 기쁨도 도



◀서울 잠실 불광사 도서관에서 한 불자가 책을 빌리고 있다.

신행공간·정보센터 기능 겸해
생활불교·지역주민 포교 큰 힘

이 책을 읽기 위해 그 사찰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불자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찰 도서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정성 들여 만든 도서관은 신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침터'와 '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또 사찰도서관에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서뿐만 아니라 각종 시사지나 월간지, 정보서적들을 함께 비치한다면 신행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식정보센터의 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불자들이 탄탄 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반들끼리 이제는 각자 집안의 속내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진 것도 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현재 도서관을 갖춘 사찰은 전국적으로 20곳이 채 안된다. 국내 사찰 수를 1만 3천여 개로 추산할 때 0.1%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절마다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큰 규모가 아니라도 좋다. 예산이 없다면 여러 신도들의 창고 속에 잠자고 있는 도서를 보시받아 1평의 작은 공간이라도 도서관을 만들자. 사찰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면 일반 불자들은 다양한 불서를 손쉽게 읽게 되어 불서 읽기 붐도 조성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신행 캘린더

9월 25일 (수)

■만현스님 초청 다보법회=대한 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춘천 현지사 만현스님을 초청, '불교와 자기구제' 주제의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만현스님을 통해 '계율 지키기와 올바른 수행법'에 대해 알아본다. (02)703-0108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전국비구니회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서울 수서동 회관으로 중앙승가대 법연스님을 초청, 한지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준비했다. 직사각형시, 함지박, 삼각함, 휴지케이스, 폐물통 등 일상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고 집안도 산뜻하게 꾸며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733-5467

9월 26일 (목)

■타사랑 '원산벌의 절집을 찾아' =타사랑은 호남 미륵산의 본거지인 김제 금산사와 원주 화암사를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길어 가는 가을, 후백제 장건주 견훤대왕의 일화가 살아 있는 금산사와 하양식 차마구조로 유명한 백제제 사찰 화암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삼 일깨울 것이다. 출발은 오전 7시 서울 안국역. 참가비는 성인 3만 8천원 (02)725-1284

9월 27일 (금)

■창무국 '삼생인연'=잊혀져 가는 전통연회인 재담을 소재로 한 창무국 '삼생인연'이 27일 오후 7

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다.

경기민요 선소리 타방, 서도소리, 휘모리 잡가 등 수많은 한국 전통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극락암생을 비는 회심곡, 이승과 저승 벽을 허무는 탐몰이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02)533-6834



◀지난 2월 열린 100번째 통일대회장.

■좋은벗들 '통일대회마당'=남북 통일을 위한 1천일 정진기도를 진행 중인 좋은벗들의 통일강좌. 좋은벗들은 동국대학교 북한학

과 박순성 교수를 초청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미래,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제의 강의를 연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초동 정토회관. 11월 22일에 1천일 통일정진기도 회향식이다. (02)587-8996

■연화복지원 '위빠사나 선 수련'=한국 유일의 미얀마 사찰인 '미얀마 선원' 주지 산다마 스님이 지도하는 '위빠사나' 강좌.

산다마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많은 한국 불자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1시 광림사 법당에서 참선 강좌를 진행 중이다. 참가비는 무료. (02)202-5831

9월 29일 (일)

■청량사 '산사음악제'=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봉화 청량사 청량사가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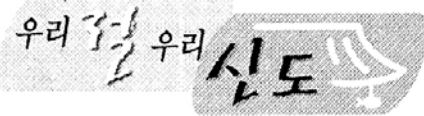
산사음악회 두 번째 마당을 펼친다. 타악기 연주팀 두드락, 북 연주자 '최소리와 자유인, 엄인호와 정경화'의 신촌불루스의 연주, 성악가 정홍스님의 독창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할 예정이다. 사회는 국악인 오정해 씨. (054)672-1446

10월 2일 (수)

■국청회 '천수경 강좌'=국청회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정각스님을 초청한 천수경 강좌를 마련했다.

'천수경 연구'의 저자인 정각스님을 통해 천수경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에서, 12월 2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02)730-1249

“국자 챙기세요” 대중공양 ‘베테랑’



청주 광덕사 양숙자 신도회장

인진왜란 시 청주성 탈환 4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6일 청주 중앙공원.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한편에서는 광덕사가 4년째 열고 있는 경로잔치 준비가 한창이다. 800여명의 국수를 삶고 떡과 음료수를 봉지에 나누어 담는 4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산하다.

“곧 행사가 끝나니까 열린 국수 그릇 정리하고 국자 챙기세요. 총무님, 수저통 이쪽으로 좀 주세요.”

공양 준비에 여념이 없는 광덕사 신도회 관공회 회장 양숙자 보살(72)은 대령화 62. 양 회장은 대중공양 준비를 하는 데는 이제 ‘베테랑’이다. 광덕사가 매년 3차례 중앙공원에서 여는 팔죽공양, 국수공양, 경로잔치는 물론 복지관 공양과 군법당 및 청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위한 위문법회 공양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 회장은 광덕사 신도가 된 것은 4년 전이다. ‘광덕사 주지 스님이 포교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0여 년 동안 다니던 근처의 절 대신 이곳 광덕사에 다니기로 결심한 것이다.

“크고 유명한 절에 다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하지만 광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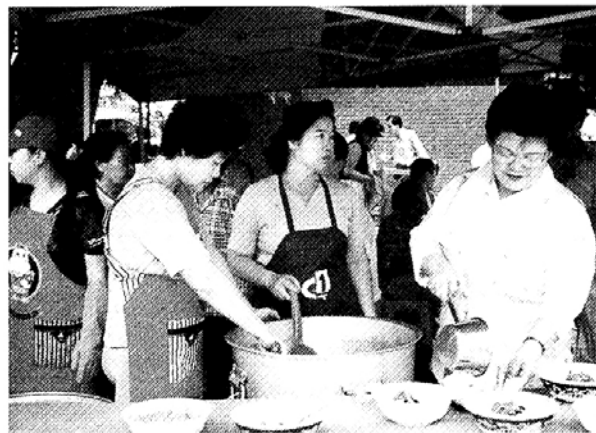
처럼, 유명한 절이지만 주지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 모두 포교를 열심히 하는 사찰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습니다.”

광덕사로 자리를 옮기고부터는 주말마다 군법당과 교도소, 복지관 등을 다니며 공양을 대접하는 일을 맡게 됐다. 예순이 넘는 나이지만 설거지하며 시장 보는 일, 심지어 사찰 안팎 청소까지 척척 해냈다. 대중공양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고, 취사시설이 없는 곳에는 가스버너부터 밥그릇, 숟가락

주말마다 군법당·교도소·복지관서 봉사
대소사 굿은일 도맡아... “큰언니 같은 존재”

까지도 잊지 않고 챙겼다. 한 달에 한번 사회복지관 공양을 나갈 때는 도시락 싸는 일도 잊지 않는다. 몸이 불편해 복지관에 나올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20여개의 도시락을 싸 직접 집으로 가져다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공양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듯 몸도 고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도 많다. 절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



◀9월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열린 경로잔치 점심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양숙자 회장(사진 맨 오른쪽)

분이 그리 많지 않아 부족분은 관공회 회원들이 행사 때 마다 십시일반 모은다.

지난해 초과일 행사가 끝나자 양

장은 손사래를 치며 “여기 있는 신도들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 서로 돕고 격려해주는 ‘진짜 보살’이에요. 나야 뭐 회장이라는 직책만 맡았지, 신도들 모두 절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앞장서서 하려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라고 말한다.

혈압이 높아 요즘은 책 보기가 힘들다는 양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참불자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국수 공양을 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국수를 건네고 떡과 음료수를 챙기는 틈틈이 ‘저기 모자 쓴 할아버지가 공양을 하

추천의말

일봉스님 광덕사 주지

관공회장 양숙자 보살은 우리 절에서 마련하는 경로잔치와 복지관 급식을 비롯하여 군법당 및 청주교도소 재소자 교화를 위한 위문법회에 남다른 신심과 원력으로 참여하시는 자비보살입니다.

박게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 초과일부터 신도회원 관공회장을 맡은 후부터는 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공양을 위해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흔쾌하게 사찰 인력의 굿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또한 부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30여명의 임원들을 기쁘게 잘 보살피며 지냅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등에 끊임없이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옛날, 파란 치마 입고 계신 할머니께 떡은 싸드렸는지”를 곰곰히 챙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큰언니’다. 두 시간 동안의 공양이 끝나자 양 회장은 “남은 국수와 떡을 양로원에 가지고 가야 하니 이제 사진은 그만 찍으라”며 국수사리가 담긴 통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청주=여수경 기자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기사제보·구독·광고문의 및 신청

-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간(肝)이 건강을 좌우한다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려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은 참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된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열거 9가미니를 달인 뒤 열거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이 묻어 나온 흰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든다는 열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10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승농원)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수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험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리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보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들이 되는 큰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시 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예약문의: 양현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배 만일경사 법왕정사 수행 중심 도량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양평 → 용문터널 → 단원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점점하차 전차요

고차원치유에너지 활용법 전수! 이제 전세계 비만인의 고민은 사라진다!! 비만안전탈출!! 지도자모집

세계최초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질병으로 변형된 DNA를 정상적인 DNA로 복원시키는 체계화된 학문교육, 약이나 투약의 도움이 없다.

- 대상:
 - ◆ 가족의 난치병 잔여에 고통을 겪고 계신분
 - ◆ 해외이민 희망자
 - ◆ 先天之명의 지혜를 가지신 남·녀
 - ◆ 인기폭발 비만 및 피부미용 상담 운영 예정자
- 교육과정:
 - ◆ 비만 난치병 조정법 6일간의 속효 조정법으로 최고의 고등분능 방법전수
 - ◆ 심이형 지능과 심이형 의식 구조학의 고난도 핵융합법 전수
 - ◆ 부작용이나 요요현상이 없다

본의무론 전수받고 난후 당신은 아래와 같은 능력이 된다!

1. 배운대로 하면된다 (살게 하는 DNA를 교정, 마르게 하는 DNA를 교정)
 2. 피부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3. 상대를 하루 1~2시간 6일만 조정해주면 된다
 4. 6일 이후 부터 비만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자기본래의 표준골격을 되찾기 위하여 불필요한 체지방을 몸밖으로 자동배출 하게 된다. 부분비만은 물론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인이라도 몇달에 걸친다. 몇달에 걸친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놀랍다! 과연신기하다! 라고들 하나 믿기 어려운 기적같은 현실임)
 5. 감기도 압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6. 난치의 비정상 세포를 몸밖으로 배출시키고 복원시키는 비전통의 학문을 전수받으시기 바랍
- ※ 종교와는 무관하며 이법을 세상에 보급할 때가 되었으므로 지도자를 양성하여 인연받은 필히배워두시길 배워두면 성공한다!
-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愈에너지 人體適用研究學會